

발행일 2025년 10월 15일

발행처 <민주조선>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발행인 <민주조선>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양재경 역사문화학과 19

편집위원 곽주은 문예창작학과 21
하윤영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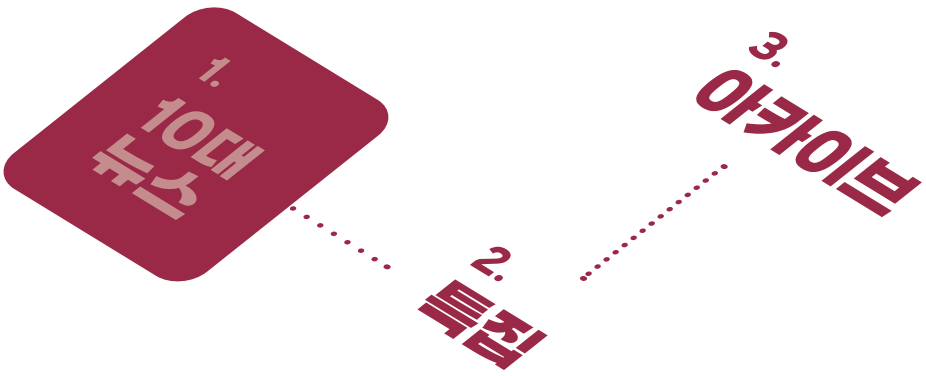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학생회관 3128호

이메일 democracychosun@gmail.com

인스타그램 @chosun_magazine

목차

- **서문** 4p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통과주권 상납 13P

이상(以上)과 이상(異常) 15P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17P

노란봉투법: 어쩌면 당신이 보장받았어야 했을 것들 21P

민주조선 시국 선언문 23P

36주기 이철규열사추모제

열사에게 드리는 편지 30P

투쟁으로 일어서는 피맺힌 함성소리 31P

4. 기고글

5. 기고시

6. 인터뷰

- **편집후기** 86p
- **예결산내역** 87p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가짜 간첩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34P
김장민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

오월의 분수대 40P
백수인 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금자 씨 43P
김승아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23학번

오용석 46P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조선대학교 구성원 52P
조선대학교 학우들
조선대학교 백학여학사 경비원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비원
조선대학교 셔틀버스 기사
조선대학교 학생식당 조리사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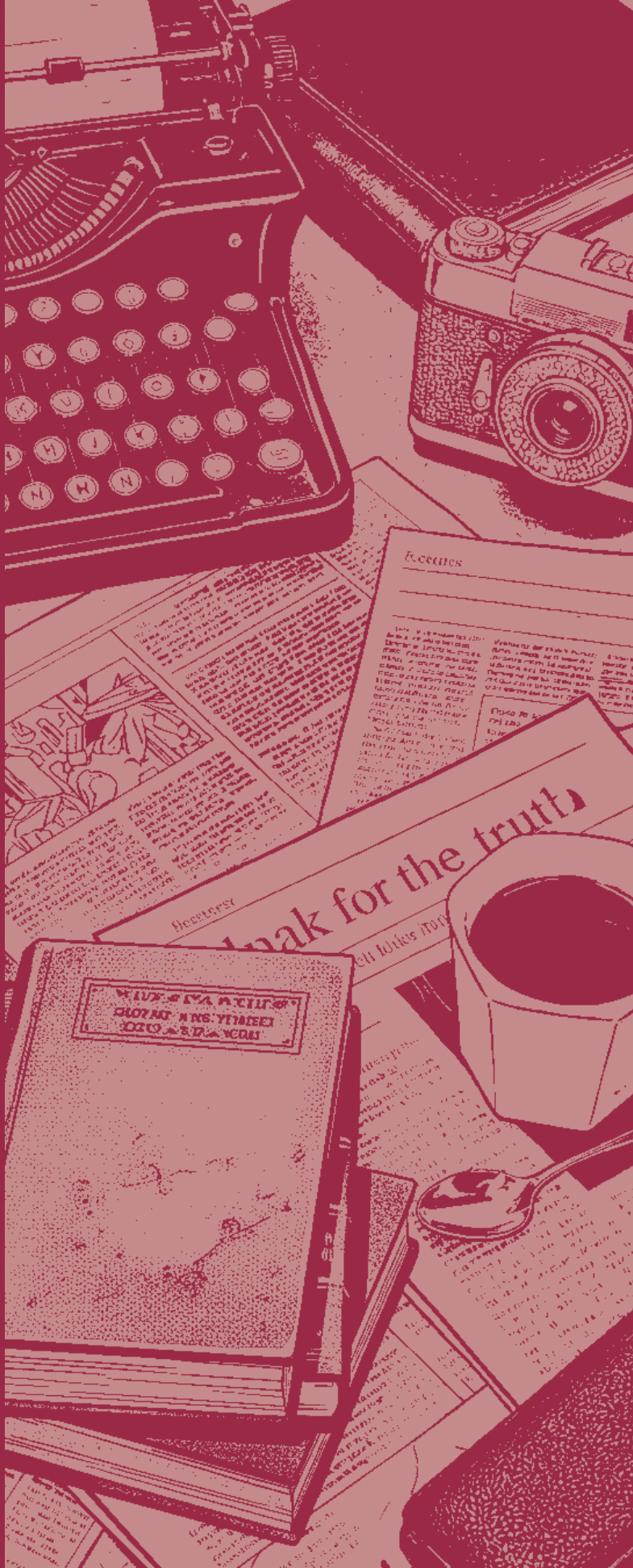
의문에서 시작됐다. 세상이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문. 참사는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왜 나의 열정과 노력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지. 왜 노동자들이 안전장치 하나 없이 죽어갔는지. 사람의 죽음을 그저 일상이라는 듯이 대하는 사회를 보았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의문은 관심으로 번졌다.

2024년 겨울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시내에 장갑차가 다니고 하늘엔 헬기가 떴다. 무장한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눴고 경찰은 국회 봉쇄를 막기 위해 달려 나간 시민들을 막아 세웠다. 내란수괴는 '반국가 세력 처단'을 입에 올렸다. 그런 시대 앞에서 민주조선은 시국선언을 펼쳐 들고 성명을 발표했다. 대자보를 붙이고 광장에 나갔다. 관심이 불러온 행동이었다. 광장에서 깨어있는 민중들은 정의의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

피곤한 주제, 시간 아까운 얘기일 수도 있다.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대외활동 하나 자격증 취득 하나 더 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주어진 일을 기계처럼 해야만 하는 삶이야말로 피곤하고 시간 아까운 것이 아닐까. 나는 정말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려운 경제, 취업난에 쫓겨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나에 대한 진지한 의문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 나, 우리가 바로 사회다.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죽지 않을 수 있었던 노동자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다. 사회를 외면하는 것은 나 자신을,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한 첫걸음은 이 사회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다. 함께 바라보고 함께 행동하면 행복한 사회, 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

민주조선 계승 3호 '관심'이 조선대 학우들에게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1. 10대 뉴스



01. 조선대 글로컬대학 선정



조선대학교가 세 번째 도전 끝에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글로컬대학30'은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대학당 5년간 최대 국비 1,000억 원(통합 최대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조선대와 조선간호대는 고령친화산업을 AI와 빅데이터, 바이오 등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통합 사업 대상이 됐다. 이를 광주광역시는 정주형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광주광역시는 9월 28일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조선대, 조선간호대, 전남대에 향후 5년간 시비 2,2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02. 대학가는 AI기술 열풍



2025년 현재 대학생들 사이에서 AI는 학습과 취업 준비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AI는 정보 검색, 아이디어 구상, 글쓰기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보조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AI의 주된 사용 이유로 시간 절약, 과제 품질 향상 등이 꼽혔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계층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03. 서울지법폭동



1월 19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석열 지지자들 일부가 격분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폭도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을 폭행했다. 그들은 법원을 무단 점거한 채 법원 청사 곳곳의 유리창과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실 집기와 시설을 때려 부쉈다. 당시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9월 16일 기준 폭동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은 총 129명이며 피해 복구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04. 포천 민가 오폭 사건

3월 6일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훈련 중 경기 포천의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KF-16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고가 접수될 당시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는 2025년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FS)의 시작에 앞서 양국 공중 지상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실사격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오폭 사고 피해 민가는 142가구이며 부상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05. 경북 산불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은 경북 5개 시, 군을 휩쓸어 역대급 피해를 낳으며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산불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 4,000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을 1조 81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06. 윤석열 파면선고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2017년 박근혜 탄핵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이로써 윤석열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윤석열이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에서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07. 헤이그 나토정상회의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렸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력 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 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직접군사비 3.5%+간접비용 1.5%'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5%'를 맞췄다. 이는 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인 2%에서 배 이상 증액한 셈이다.

08.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7월 31일,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3,500억 달러(487조 원) 규모의 투자, 1,000억 달러(139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와 더불어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는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3,500억 달러 투자 중 약 1,500억 달러 규모는 미국과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구성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의 경우

반도체, 원자력발전소 등 추가 투자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3,500억 달러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수익 배분 구조가 '미국 중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합의에서 한국의 관심 품목 중 하나였던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본 품목들에 대하여 기존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수출 업계의 부담은 여전히 남았다.

09. 이재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뒤집지 않아야



8월 21일 보도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권에서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유지의 뜻을 밝혔다.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지만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제 일본에서는 '과거사 문제는 끝났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역사적 퇴행이라고 규정했으며, 본 발언이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 검찰청폐지



이재명 정부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8년간 존치한 검찰청을 폐지한다. 대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 유지 기능을 맡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은 개정안이 통과돼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2. 특집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통화 주권 상납

양재경 편집위원장

한국이 갈림길에 놓여있다. 한국 정부는 25% 관세와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현금 투자의 양 갈래 길에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전제로 한 막대한 대미 투자를 택했다가, 미국 정부의 거부와 한국 민심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강행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지만,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필요조건'으로 내세우며 3,500억 달러 선불 강요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앞서 미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25% 상호 관세 부과 시 감소하는 대미 수출액을 연간 125억 달러(17조 4,000억 원)로 추정해 〈한국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결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통화스와프는 한마디로 '국가 간 외화 마이너스통장'으로, 외환시장 밖에서 필요할 때 즉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환율 급등을 완화해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 수입 물가와 해외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강조하며 통화스와프 체결을 반기고 있다. 반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환차리스크', 만기연장(롤오버)이 안 돼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는 '연장리스크', 상설·무제한 스와프 라인의 미국 중심성으로 인해 외교·정치 변수에 노출되는 '비대칭리스크'가 따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쨌든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오면 천문학적인 수수료·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가 지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을 때의 예상금리는 5.5% 전후로, 3,500억 달러를 4년 동안 갚을 경우 이자 비용만 724억 달러(약 10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한쪽에선 연간 금융비용을 150억 달러(약 21조 원)로 예측한다. 3,500억 달러에 추가로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과 아직 협상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기하급수로 불어날 것이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 25%를 적용할 때 2024년 실질 GD P기준 손실 추정액을 연간 7조~9조 원으로 전망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국의 통화 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 10월 3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에 전달한 MOU(양해각서) 수정안을 통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한국이 투자 원금의 90% 회수, 직접 투자 비중을 5%로 제한 등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1일 한미재무당국이 합의한 환율정책에서 외환시장 상황 및 '안정(Stability)'을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3,500억 달러 자금조달의 책임은 한국이 지지만, 그 수익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미국과 한국 5대 5, 원금 회수 이후엔 9대 1이며 투자처도 미국이 결정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사활적으로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에 나설수록 협상의 주도권은 더욱 미국에게 쏠릴 것이다. 미국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조건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등 다른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500억 달러 현금 지급 즉,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제2의 IMF'다. 한국의 외화보유액 4,163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바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말 그대로 탄핵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97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위기·민생 파탄의 고통에 신음할 당사자는 우리 민중이다. 1977년 당시 IMF(국제통화기금)가 요구했던 기업 구조조정, 부실 금융기관 정리,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해 국제 투기 자본이 한국에 유입되었고, 기업은 줄줄이 문을 닫았다. 노동시장유연화는 수많은 노동자·민중을 순식간에 해고시켰으며, 비정규직을 만들어 불안정한 사회구조와 무한 경쟁사회를 야기했다. 3,500억 달러는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를 내어주면 열 개, 백 개를 약탈해 가는 것이 제국주의다.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미국의 강탈적 요구에 대해 'ATM코리아', '글로벌 슈퍼 호구'를 거부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구걸하며 예속의 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민중의 이익·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자주의 길을 택해야 한다.



이상以上과 이상異常

양재경 편집위원장

2017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같은 동아리 부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논란이 됐던 국정화 교과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작성한 적이 있다. 비록 반나절도 안 돼 교장선생님에 의해 뜯겼지만 대자보가 뭔지도 몰랐던 시절, 친구와 함께 크고 하얀 종이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요구를 적어 내려갔던 경험은 전 국민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가던 때 학교에만 있었다는 죄책감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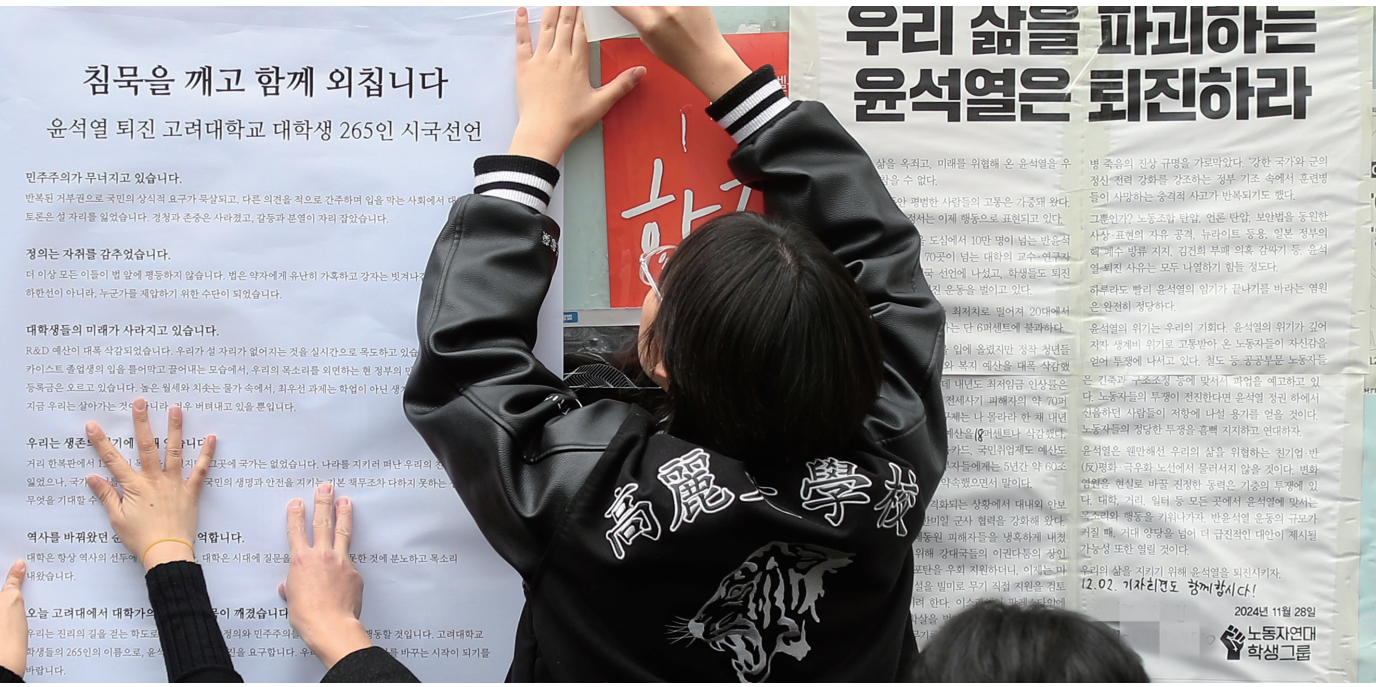
그 뒤로 한 때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접하면서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민주조선 교지 편집위원회에 들어와서는 정말 많은 대자보를 썼다. 우리 학교 열사들을 기리는 대자보부터 세월호참사,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10.29참사. 그리고 윤석열정권을 규탄하는 대자보, 시국선언문과 성명문까지.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대자보를 읽어 볼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스스로의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모전, 대외 활동 포스터로 점철된 학교 게시판에 이 사회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큰 학문을 배우는 곳이라던 대학은 대기업화된 지 오래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담은 대자보를 떼어버리고 각자도생, 개인주의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대학교는 무한경쟁 사회로 나가기 전 준비단계에 불과해졌다. 심지어는 학생이 학교에 주인이라는 인식을 없애버리려 행정시스템까지 바꿔가며 시시각각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감시한다. 대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민생 파탄, 굴종 외교를 해대던 윤석열은 기어코 내란수괴가 되었다. 전국의 대학교에서는 시국선언문과 성명을 발표했고, 대자보를 부착했다. 광장에서는 100만, 200만의 민중들이 모여 윤석열 정권 탄핵을 외쳤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반민중적인 정권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참사를 겪어야 했다. 만연해진 개인주의와 냉소주의 그리고 무한 경쟁사회는 친구의 죽음에 눈물 흘릴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우울증은 감기처럼 우리 곁을 맴돌았고, 자신을 스스로 끊임없이 검열하는 삶 속에서 '행복'이란 단어는 멀게만 느껴졌다. 과연 누가 이런 삶을, 이런 사회를 원할까?

역사는 거리에서 바뀐다고 들었다. 차디찬 광장 바닥 아스팔트에서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며 얻은 건 내가 얼마만큼 사회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과 혼자가 아닌 우리라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한때는 유독 정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친구끼리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데 그럼 누가 나랑 정치 이야기해 주나 싶어 서러움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여전히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부정의에 침묵하고 싶지 않다, '피곤'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사회에 무감각해지고 싶지 않다. 너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가 되는 이 사회에서 남 일인 양 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려는 파쇼 세력의 의도대로 따라주고 싶지도 않다. 나는 거리에서 부정의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봤다. 나는 이제 역사를 전진시키는 이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므로 확신한다. 이 땅에 뿌리 내린 파쇼 세력은 결국 뽑혀 나갈 거라고.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곽주은 편집위원

세계가 첫 번째로 구성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우리가 기억하는 첫 번째 기억은 대개 4살에서 5살 정도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왜 기억의 시작은 눈을 뜬 순간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서야 시작되는 것일까? 다수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기억이 언어의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우리는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세계(signifié)를 인지하지만,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적립되는 것은 언어(signifiant)의 형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물체가 아닌 언어다. 단어가 모여 언어가 되고, 그것이 심상 안의 물체와 세계를 구성한다.

색에 관한 이야기는 이를 조금 더 명시적인 방향으로 드러낸다. 오래전 일본에는 '파란색'이라는 말이 없었다. 파란색은 그저 초록색의 스펙트럼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 당시의 일본 사람들은 실제로도 초록색과 파란색을 구별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를 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 우리가 '파랑'과 '초록'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파랑과 초록이 다른 단어로 우리 안에 명시되기 때문이다. 언어는 우리가 세계를 규명하는 창구이며 내 안에서 세계를 새로이 그리는 일련의 도구다. '앎은 삶의 해상도를 올리는 일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로 구성된 문장은 우리 속에 남지 않고 우리를 스쳐 지나갈 뿐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류의 담론은 우리의 뇌리에 박히지 않는다. 단어와 구별은 그러므로 담론보다 선행된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도, 논할 수도 없다. 경험의 풍부함은 그 사람이 세계를 얼마나 세밀하게 구별하고 아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온다. 똑같은 풍경을 10개의 단어로 서술할 수 있는 사람에 비해 100개의 단어로 서술할 수 있는 사람의 세계가 훨씬 풍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담론이나 경험적인 부분뿐 아니라 심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참이다. 우리는 세계를 '더 정확히 구별할수록' '세계와 더 잘 맞설 수' 있다. 생생하게 느낄수록 우리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감정에 언어가 부여돼요. 왜 화가 났는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뭔지 언어화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라는 김영하 작가의 문장은 심리학적 층위에서도 진실이다. 21세기 심리학은 말한다. '기분이 나쁠 때 부정적인 감정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이겨낸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짜증 난다'는 단어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짜증 난다'는 단어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상황에서도, 분노하거나, 상대를 경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 혹은 절망감을 느낄 때도 사용된다. 이 외에도 '짜증 난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쓰이는 용례를 찾자면 이 교지의 모든 지면을 할애해도 부족하리라.

여러 감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어는 '단지 유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단어는 우리의 세상을 비좁게 만들고, 내 감정에 대한 해상도를 낮추며,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축소하는 데에 일조한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대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분노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가라앉히거나, 이 분노를 풀 수 있는지, 지금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며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험들과 기억을 단어와 어휘의 형태로 구별하는 것은 그 사건 하나하나에 태그를 달아 두는 일과 같다. 이것과 저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언제 무엇을 찾든 단번에 그것을 찾아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현재를 어떻게 맞서나가야 하는지를 떠올리기 쉽게 그룹화해 두는 것이다. 그러나 '짜증 난다'는 단어가 일상 속의 습관이 될 때 그 단어는 '내가 사랑하는 일'과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과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을 한데 섞어버린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햇수만큼 쌓여 온 데이터베이스와 살아가며 하나하나 붙여갈 태그들을 아무렇게나 뒤섞고 잘 정리되어 있던 사물함을 엉망으로 뒤섞어 흩어놓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짜증 난다'는 단어 뒤로 숨겨준, '정확하게 그룹화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을 그런 식으로 잃어버린다. 상대가 칼을 들고 오는지, 횃불이나 펜을 들고 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덮치는 삶의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구별되는지가 아닐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단어가 비단 '짜증 난다' 하나뿐일까. 짜증 난다, 킹받는다, 긁힌다, 오글거린다… 사실 전부 비슷한 단어가 아닌가?

인터넷과 SNS, 기계장치가 사람들의 뇌를 어느 정도 대체해 버린 21세기, 사실 우리가 유행과 흐름이라는 급류에 스스로를 내던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가 애를 쓰며 우리의 '언어 주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 어휘의 상실은 내 세계의 상실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규명할 수 있을 때야말로 우리 바깥의 세계와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바깥의 세계'는 결코 다정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이자 그 세계에 항거하는 인간이며,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인간이고 이 세계를 바꿔나가야 하는 주체자다.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세계에 맞서 우리의 삶을 쥔 채 일어나는 것은 대단하고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우리의 입술 사이로 새는 언어에서 시작된다. 자, 그러니 잠시 휴대폰을 점령한 무분별한 남용과 우리의 삶을 뭉개버리는 단어들을 내 입에서 떨쳐내자. 오글거리고 불편하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오래 떨어져 있던 문장과 어휘들을 다시 곱씹어보자. 내가 느끼는 것을 온전하고 낱낱이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던 사회의 관념을 탈각하고 말해보자. 언어라는 키를 쥐고 내 삶이라는 파도 앞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 우뚝 서 삶을 움직이자. 횃불을 들어 올리고, 좁아 들었던 우리의 세계를 다시금 펼쳐내자.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다.


들어오면 누군가 죽는다. 그만 해라!
살고서
실신신법


POLICE

노란봉투법: 어쩌면 당신이 보장받았어야 했을 것들

곽주은 편집위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파업과 단체행동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조법 개정안)'이다. 이 법에 '노란봉투법'이란 별칭이 붙은 배경에는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는 외환위기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쌍용자동차 노동자 총인원의 36%에 해당하는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21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 이들의 맹렬한 총파업으로 5월 31일 공장은 폐쇄되었다. 이들의 총파업은 77일간 지속되었으며 실무 교섭을 통한 노사 합의서 작성으로 2009년 8월 6일 최종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2014년 사측에 의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이 사회가 노동자가 아닌 사측의 손을 들어준 명백한 판결이었다. 명백하게 노동자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이라는 성금을 담아 언론사에 전달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데에 착안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 의미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은 시민연대로 번져나갔다. 노동자와 시민 연대의 상징인 '노란봉투'가 법안 명칭에 반영되어 비로소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이때부터다. 그러나 노란봉투가 하나의 법안으로 상정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2023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재이송, 결국 부결되었다. 2024년 8월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 결국 '노란봉투법'은 국회의 담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의 담장을 넘은 것은 윤석열 정부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의 일이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날로부터 3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본 개정안에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청회사·파견회사·자회사·계열사 등 간접 고용 근로자나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원청이나 모회사 등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근로자가 아닐 경우 노조 가입이 불가했던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하여,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 등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근로조건 '결정'만 노동쟁의 대상이었던 이전과 달리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단체협약의 중대한 위반 행위까지로 확대된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손해배상액 제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은 '노란봉투법'의 첫 발의에서부터 시작된 오랜 투쟁이 이루어낸 쾌거다. 2025년 9월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이제 6개월 뒤에 있을 실행만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부르짖었던 노동3권은 대체 어디로 갔던가? 어떤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했다. 노동의 형태에 따라 '노동자'라는 권리의 이름은 침묵했다. 어떤 교섭은 껍데기뿐이었다. 무수한 건설노동자의 죽음은 실질적 고용주의 이름을 두르지도, 수면 위로 대두되지도 않았다. 파업은 침묵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의 파업에 내리던 법의 철퇴를 기억한다. 그때의 법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사회에 복무하며,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의 편에서 사회의 도리인 '더 많은 이윤'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심판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빌미로 노동자들이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아섰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 앞에서 우리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단순한 '노동 구조의 일부 변화'가 아닌 더 거대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 이제 와 이 시대에 묻는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죽음으로 돈을 쌓는 일인가? 피로 지은 마천루 아래에서 소수의 졸부만이 지폐를 흩뿌리며 낭만을 노래하는 일인가? 타인의 피를 쥐어짜 쌓아 올리는 발전만이 발전이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무익한가? 법은 바뀔 수 있다. 어떤 이윤도 권리의 위에 서서는 안 된다. 세상은 노동자의 부름에 화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실천은 부조리를 모르는 척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저 멀리, 그러나 우리의 눈동자로 관측할 수 있는 저변에서 노동의 내일이 밝아온다. 우리는 이 사회에 설 한 명의 노동자이며 그 시대의 주인이다.

반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

12월 3일 22시 28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은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 선포시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계엄을 선포했으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윤석열은 이 세 규정을 위반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계엄포고령 내용의 위헌성은 더 심각하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요건부터 성립되지 않으며, 헌법과 계엄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입법부 활동을 무시한 채 포고령 1호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비상계엄선포는 사실상 군사반란과 같다. 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시내에 장갑차가 등장했고,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으며,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에 진입했다. 제1야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체포조와 저격수가 배치되었고, 국회의 정당성을 파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원회에도 군대가 투입되었다. 이는 명백한 내란이자 군사반란이다. 계엄군의 지휘통제실에서 윤석열이 군의 투입 과정을 보고 받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목격했다.

우리는 80년 5월 18일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비상계엄이 지나간 자리의 참혹함을 알고 있다. 군형법5조에서 반란수괴는 사형이고, 형법 제87조에서도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광주의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과 그에 부역한 노태우가 군사 반란 혐의로 각각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년 만에 사면되었고,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두 반란수괴가 편안히 눈을 감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다. 5.18로부터 겨우 4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피로 새겨진 역사를 되풀이할 위기에 놓여있다.

1차비상계엄은 실패했으나 윤석열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97년 헌법재판소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했던 것을 인용한다. 사실상 헌법을 바꾸려 친위쿠데타를 시도했음을 스스로 실토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지지율마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2차비상계엄을 획책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반란수괴 윤석열의 공범을 자처한 국민의 힘이 탄핵 의결투표를 거부하며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되었으니 2차비상계엄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우리대학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에게 점령당했고, 우리가 축제무대로 삼는 운동장에서 수많은 광주시민과 우리대학 학우들이 죽었다. 구 전남도청에서는 김동수 열사가 계엄군의 최후진압작전에 맞서 시민군으로 저항하다 산화했다. 80년 5월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대학 학우들은 역사의 상흔을 기억하며 후대인 우리가 오월의 영령들을 역사의 승리자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이 그 결의를 불태울 날이다.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의 양심을 가지고 반란을 도모하며 나라의 안녕을 해치는 반란우두머리를 몰아내자. 역사적으로 항쟁의 선봉에는 언제나 청년학생이 있었다.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의 체포를 앞당기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하나.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반란수괴 윤석열은 범죄자다. 범죄자 윤석열을 하루빨리 체포하라

하나.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에 일조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무리들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뿌리 뽑아 처벌하라

하나. 지역을 막론하고 참여 가능한 반윤석열 집회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윤석열을 체포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2024년 12월 10일

〈민주조선〉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명분 없이 껍데기뿐인 계엄이었지만 우리는 보았다. 헬기가 뜨고 무장한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았다.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누가 '반국가 세력'인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윤석열은 헌정질서가 짓밟혔다 말한다. 12월 3일, 헌정질서는 누가 짓밟았는가?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했고 12.12 담화에서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2차 계엄, 2차 내란을 예고했다. 또한 윤석열이 계엄을 작전하며 북파공작원 HID를 동원한 사실과 한동훈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사살을 계획한 것도 밝혀졌다. 이 모든 계획을 북의 소행으로 조작하기 위한 '가짜 깃발'작전이었다는 사실조차 수면 위로 드러났다.

파쇼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발악은 역사에 분명히 남아있다. 불과 35년 전 우리 대학의 교지 민주조선에 논문 '미제침략백년사'를 실었던 이철규 열사는 전두환 군사파쇼 독재 권력이 휘두른 국가보안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미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군사 파쇼 독재 권력이 진실을 가리려 '국가보안법'이란 희대의 악법으로 입을 틀어막은 것이다.

계엄 선포 직후 주한 미 대사 골드버그는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차장과 통화를 시도했고 미 하원 의원 셔먼은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수집 능력이 있다'며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6년 제주항쟁,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모두 미 제국주의의 배후 조종 아래 국가폭력을 휘두르던 파쇼 독재 권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수많은 민중들이 있었다. 탄압이 거셀수록 독재 타도와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외침은 더욱 커져갔고 1987년, 우리는 끝내 승리했다.

2024년 12월 14일, 우리는 또다시 유린당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광장으로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외쳤고 결국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우리의 선배 이철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더 이상 국가 폭력과 탄압으로 우리 민중의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민주조선은 말한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 24일
〈민주조선〉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즉각 구속하라!

4월 4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일이다.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3일 100만의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모여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시켰고, 12월 14일 200만이 모여 탄핵안을 결의시켰다. 그로부터 약 4달이 지나는 동안 체포됐던 윤석열은 구속 취소되어 제 발로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윤석열 파면'이라는 뜻으로 모인 대학생들을 분열시키려 대학가에 '탄핵 반대 집회'를 조작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상식에 따라 우리 민중의 요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답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여전히 기억한다. 1979년 전두환의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길거리에 장갑차가 돌아다니고, 의원들의 의회 출입을 막고, 707부대는 실탄을 장전한 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했다. HID 공작, 노상원 수첩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윤석열이 12·3 계엄·내란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했는지 보여준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 헌정질서를 운운하던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를 알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20만 호남 민중의 조선대학교를 세웠고, 이철규 열사를 비롯한 우리 대학 선배들은 군사파쇼 정권의 마침표를 찍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했다. 이철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 민주조선의 사명은 진정한 자주와 민주가 실현되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에 있다. 2025년 4월, 우리 앞에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구속이라는 당면 과제가 놓여있다. 민주조선은 이철규 열사의 뜻을 이어 우리민중의 빛의 항쟁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2일

〈민주조선〉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3. 아카이브





이철규열사약력

1964년 5월6일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관동부락 753번지에서 이정진·황정자의 3남 2녀 중 셋째로 출생
1976년 2월	삼서초등학교 졸업
1979년 2월	장성 삼서중학교 졸업
1980년 5월	고교 2학년 재학 중 광주민중항쟁 참가, 부상자 병원 후송 도움
1982년 2월	광주 금호고등학교 졸업
3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입학, 동아리 UNSA 활동
1985년 11월14일	삼민헌법 쟁취를 위한 군부독재 타도위원회 활동 중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제적
1987년 7월8일	6월항쟁의 파급으로 가석방, 출소 후 곧바로 '전남지역구속학생동지회' 부위원장 활동
9월2일	'학원민주 쟁취 및 복적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활동
1988년 9월	학원민주화의 성과로 3학년 2학기에 복적
1989년 1월	「민주조선」 교지편집위원장 역임
4월10일	「민주조선」 교지 창간호 발간과 관련하여 현상수배(현상금 300만원, 1계급 특진)
5월3일	제4수원지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마지막으로 행방 묘연
5월10일	오전11시30분경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
11월4일	사인진상규명투쟁 178일만에 민주 국민장으로 장례식 거행.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
1990년 2월	조선대학교에서 명예졸업장 수여
1992년 5월6일	조선대학교 교정에 추모비 제막
2002년 9월1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1차) '진실규명 불능' 결정
2004년 5월4일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사망)
2004년 6월3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재조사(2차) '진실 규명 불능' 결정
2010년 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소극적 조사활동에 항의하며 유가족 진정철회
2021년 3월8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접수(현재 조사중)



열사에게 드리는 편지

양재경 편집위원장

세상은 세상에 자기를 맞추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세상을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에 의해서 조금씩 발전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과 규율을 엄수하고 모양 꾸며 얼굴 내밀지 않았다던, 동지 위하기를 제 몸처럼 하면서도 비판과 자기비판은 철두철미했다던 선배 이철규 열사의 생애를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날 학생 사회는 숱한 파쇼 세력의 탄압과 신자유주의가 심어놓은 개인주의로 점차 파편화되었습니다. 학문의 상아탑이라 불리었던 대학은 대기업화되었고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굴레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조선 교지 편집위원회는 조선대 2만 학우의 교양지로서 학생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사색하고 불철주야 현장으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풀리지 않은 모순투성이입니다. 자격증에 공모전에 스펙이란 스펙은 다 쌓아도 결국 비정규직 명찰을 달 수밖에 없는 사회, 민주주의를 외쳤더니 반국가 세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철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나선 후배들로서 사회의 모순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내 삶에 주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양심과 정의를 가슴 속에 품고 열사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36주기 이철규열사추모제 참여수기

투쟁으로 일어서는 피맺힌 함성소리

양재경 편집위원장

비가 쏟아질 듯 어둑한 날씨. 우리는 망월묘역으로 출발하기 전 이철규 열사 추모비에 모여 '이철규'가 누구인지에 대해 들었다. 그렇다면 이철규 열사는 누구인가? 이철규 열사는 장성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로 유학을 온 인물로 군인들이 시민들을 구타·폭행한 것은 물론 그들을 향해 최루탄과 총알을 화살처럼 쏘아댔던 80년 광주를 목격했다. 시다공으로 고된 노동을 하다 병에 걸린 누나는 병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보냈다. 이러한 열사의 학창 시절은 열사가 이 사회에 깊게 잔존해 있는 제국주의 파쇼 세력들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시발점이 되었다. 82학번 전자공학과로 입학해 사회과학서적을 읽으며 사회를 탐구하고 동아리를 만들어 학우들과 끊임없이 토론했던 선배 이철규, 박철웅 일가가 장악한 민립 조선대학교를 학생들의 품으로 되찾고자 온몸으로 투쟁했던 열사 이철규. 1.8항쟁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민주조선 교지 편집위원회를 만들었던 초대 편집장 이철규는 이 땅에 똬리를 틀고 앉아 우리의 주인 된 권리를 앗아간 자들을 떠올리며 '미제침략백년사'라는 제목에 글을 교지에 실었고 그렇게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나갔다. 전신은 검게 그을렸고 왼쪽 눈알은 돌출된 채로 발견된 시신은 그가 파쇼 세력에게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만 같았다. 정의를 외치는 학생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이철규, 적들에겐 반드시 막아야만 했던 존재.

1년이 지난 오늘, 선배가 걸어간 길을 후배들이 뒤이어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얼마만큼 지켰는가 스스로 헤아려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들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엄동설한 아스팔트 바닥에서 구호를 외치며 투쟁했고 끝내 민중의 목숨을 팔아 제 권력을 연장하려던 반민중 파쇼 세력을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렸다. 비록 파쇼 세력과 미 제국주의 세력은 이 땅에 깊게 잔존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안다. 선배들이 그토록 외치고 바랐던 민중이 주인 된 사회는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많다. 망월묘역에 안치된 수많은 애국열사들과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했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반민중 반민족 파쇼 세력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미 제국주의 세력 또한 그 자리에 똬리를 틀고 앉아 우리 민중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다짐했다. 사람답게 살고자 투쟁했던 열사의 발자국을 따라 나아가기로. 대기업화된 대학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교지를 읽고 대자보를 쓰고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 모순을 끊어내기로. 그 수없는 투쟁의 길 위에 우리는 서 있다. '언제까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라는 일념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이 양심을 알고 정의를 아는 자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 선배들이 온 몸을 던져 맞이한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 후배들이 이어나갈 것이다.



4. 기고글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가짜 간첩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막걸리 보안법'

국가보안법의 가장 독소조항은 찬양, 고무,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는 단순한 의사표시도 처벌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도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군사주권을 회복하자는 발언, 남북이 연방제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발언, 심지어 미국의 F35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발언도 북의 주장을 찬양한다는 구실로 처벌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 어르신들이 막걸리 먹고 정부를 비판하다 잡혀가는 일이 빈번해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오명도 얻었다.

찬양고무죄는 정부와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지닌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경찰들이 각종 게시판과 SNS에 올린 글들을 검열하고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남발한다. 각종 사이트의 관리자에게는 해당 글을 지우라고 압박한다. 결국 이런 일을 당한 시민들은 물론,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도 국가보안법이 무서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도 입을 닫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즉 경찰들이 '본보기'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안법 사냥'을 하는 셈이다.

이런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구성, 가입'이라는 더 무서운 독소조항이 있다. 단체구성원에 대해 우선 쉽게 보안법으로 엮을 수 있는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압수수색하면서 단체 자체를 이적단체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적단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찬양고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것이다.

아버지를 신고안하면 불고지죄로 처벌

국가보안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되는 불고지죄이다. 과거 남북분단이나 한국전쟁으로 헤어졌던 삼촌이나 친척이 북에서 내려왔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간첩으로 처벌받았다.

심지어 아버지가 고기를 잡다 표류하여 북에 체류한 후 남으로 돌아왔을 때, 공안기관이 고문으로 아버지를 간첩으로 만들고 가족들 역시 불고지죄를 적용해 간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조작한 '가족간첩단'이 한 두건이 아니었으며, 민주화 이후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

그런데 그 불고지죄 조항이 아직도 남아 있다. 단지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친척의 경우 공안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있다. 결국 친척이 아닌 경우 당연히 불고지죄로 처벌되고 설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안기관의 판단에 따라 괘씸죄로 여전히 처벌될 수 있다. 가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일반인의 정서와 인륜에 반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내란정권 때부터 국가보안법 선고형량 가혹해져

윤석열 정권부터 국가보안법에 대한 형량이 비상식적으로 가혹해졌다. 윤석열 정권이 초기부터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비판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 또한 남북 긴장이 심화되고 이데올로기 대결이 격화되면서 사법부가 보수화됐다. 특히 윤석열이 친미냉전의 사고를 지니고 있는 극우인사들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앉혔기 때문이다.

이른바 반미활동을 주로 해 온 '충북동지회'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무려 12년을 선고했다. 이 단체는 이적단체는 물론, 반국가단체도 적용받지 않았는데, 그 보다 훨씬 가혹한 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 상근자는 간첩 혐의로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밀입북한 적이 없는데, 이는 과거 실제로 북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처벌받았던 사례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형량은 이재명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통일운동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이미 사라져

국가보안법의 근거는 한국의 영토는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 전체와 그 도서지역인데, 북이 이북을 무력으로 점령한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다. 물론 한국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휴전상태로서 북이 교전의 상대방이라는 점도 포함된다. 하지만 헌법 제4조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남북은 1972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방식에 합의했고, 1991년 남북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남북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시절에 3차례 남북수뇌회담을 갖고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 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돼 남북 간의 민간교류가 활성화 됐으며 2006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특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그 전문에 기존의 남북합의의 효력을 재확인하고 남북 간의 모든 협정은 국가 간의 협정에 준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재정에 관한 것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법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의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법적 효력을 부여받았다.

북이 여전히 교전상대방이고 반국가단체라면 이들과 평화교류를 하고 국제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협정을 맺고 국회 동의까지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비록 북이 과거 교전상대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 중단됐고, 남북의 평화교류와 수많은 남북합의에 따라 현재로선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물론 남북대치 상황에서 아무런 제한조치 없는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에 그러한 절차를 두고 심지어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법과 형법상 간첩죄를 고려하면 불필요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상 간첩이 될 수 없는 경우, 즉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는 경우까지 간첩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진짜 간첩들을 처벌해야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에서 억지 간첩을 양산하고 있는 반면, 형법은 진짜 간첩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형법은 적국의 간첩만을 처벌하므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위한 간첩을 처벌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로버트 김이 9년형을 선고받은 것에서 보듯이 동맹인 한국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간첩죄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위해 대놓고 간첩질을 하는 경우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북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모두 처벌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보안법이 가짜 간첩을 만들고 있는 반면 형법은 진짜 간첩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한국에 대한 북의 간첩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남북접촉을 간첩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신 형법상 간첩을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수정하면 된다. 북도 당연히 기존의 남북합의에 따라 국가에 준하는 특별한 권력주체로 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 간첩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5. 기고시

오월의 분수대

백수인

80년 오월 광주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외로운 섬이었다
파도조차 닿지 않은 피 묻은 감옥이었다

우리들은 매일 도청 앞 분수대를 중심으로 모였다
노무자도 식당 종업원도 대학생도 고등학생도
회사원도 교사도 운전기사도 청소부도
우리들은 모두 시민의 이름으로 평등했다

분수대는 더 이상 물을 뿜어내지 않고
시민들의 열정만을 뽑아올렸다
분수대 난간에는 누구든 올라 소리칠 수 있는
자유가 펄럭이고 있었다

어떤 이가 마음속 울분을 토하면 그 분함이
모두의 가슴 속에 메아리쳤다
어떤 이가 올라와 "살인마 전두환"을 규탄하면
모두가 일어나 박수로 환호했다

그때였다
어떤 이가 나가서 한 옥타브 높은 소리로 외쳐댔다
“미국 항공모함이 부산항 가까이 오고 있답니다!”
우리는 박수를 치며 흥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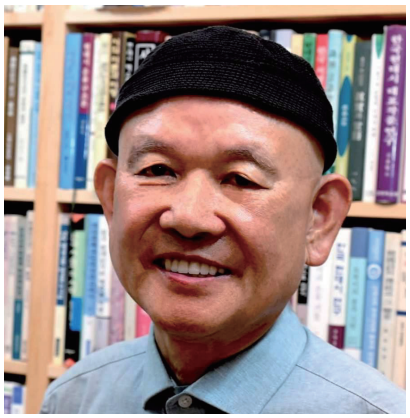
정의의 나라 미국, 세계의 민주경찰 미군이 오면
독재의 뿌리, 군부의 불의와 역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민주주의를 꽃피울 정의 세상을 꿈꾸었다
빛나는 햇살이 금남로에 출렁였다

며칠 후 새벽 광주는 침몰하는 섬이 되고 말았다
하늘에서 총탄이 비처럼 쏟아지고
도청을 지키던 시민군들의 붉은 피가 금남로 위에 흥건했다
시민들의 가슴 가슴엔 피멍 같은 구멍이 송송 뚫렸다

전두환은 광주를 그렇게 짓이기고
광주의 민주 열망을 폭파시키고
기어이 “대통령 각하”가 되었다

우리는
미국이 민주의 편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사자가 아니라
세계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말 잘 듣는 ‘각하’의 편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리를 지켜주는 형제의 나라 미국
굶주린 우리에게 밀가루를 공짜로 주고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로 숭상해야 한다고
유신 시절 귀에 못이 박히게 배워온 우리들의 가슴에서
어느새 성조기가 불타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미문화원이 불타기 시작했다



백수인 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다가 2003 년『시와시학』에 추천되어 시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다 2000 년에 정년 퇴임했다. 한국언어문학회 회장,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 대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5·18 기념재단 이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현대시와 지역문학』『소통과 상황의 시학』『소통의 창』『장흥의 가사문학』『기봉 백광홍의 생애와 문학』『대학문학의 역사와 의미』, 시집으로『바람을 전송하다』,『더글러스 퍼 널빤지에게』,『겨울 언덕의 백양나무숲』이 있다. 현재 '시와시학' , '원탁시' 동인이며, 조선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다.

금자 씨

김승아 문예창작학과 23

금자 씨에게 금요일마다
금연할 것을 권했습니다

새로 생긴 불행을
훔쳐 온 것처럼 기뻐하는
금자 씨 그런 것을 먹는다고
삶이 커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깥에서 안으로
깨지는 안정감은 가끔
움직이지 않아도 좋았고

금자 씨가 묻는다

그런 내가 무섭니
겁이 증식하니

저기, 들어보세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을 놀이처럼
가지고 놀지 않았나요

백 년도 못 사는 것들끼리
지지고 볶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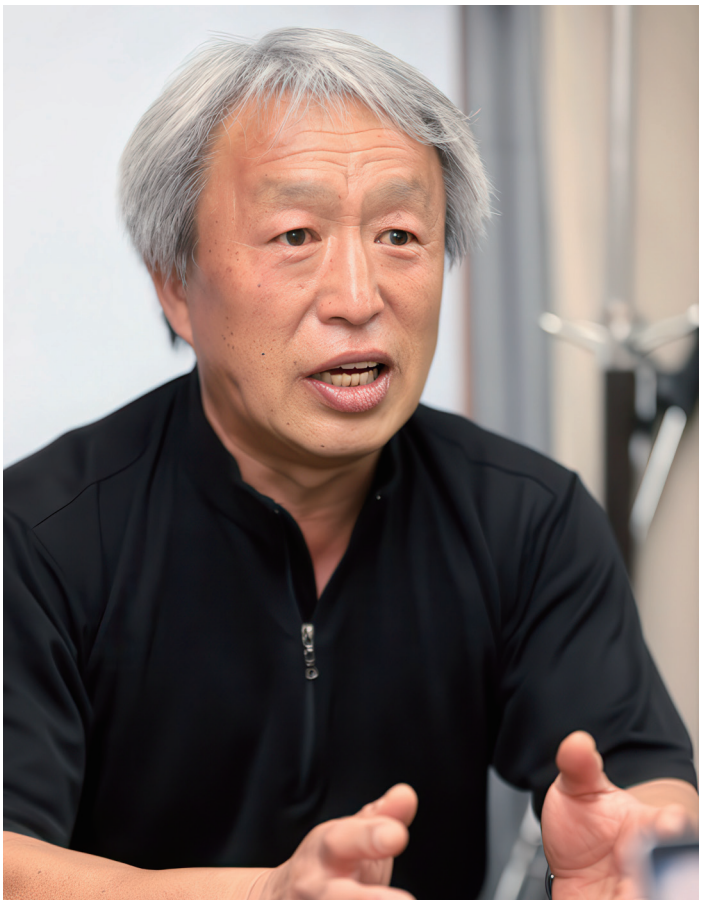
아무도 원한 적 없는
답을 주자 금자 씨 미지근한
땀방울을 흘리고

나는 뛰지 말라고 소리친다
내일도 밟을 여분의
금자 씨가 필요했다





6. 인터뷰



오용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Q1 “농민학생연대활동이 활발했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나?”

A1

1년에 네 번, 봄·여름·가을·겨울 농활을 진행했다. 농활을 앞두고 농민회와 농활을 어떻게 진행할지, 농활뿐 아니라 농학 연대 사업을 어떤 목표와 기조에 따라 진행할지를 토론 했다. 강원도 지역은 서울 북부에 있는 학교들과 함께 3천 명 정도, 전국적으로는 약 3~4만 명 정도가 농활에 참여했는데 그때 당시엔 한 개의 과가 한 마을을 책임지는 시스템이었다. 학생들이 농민들한테 의식화 교육한다고 오해받는 일도 있었다. 마을회관을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땐 회관 앞에 비닐 천막 치고 생활하면서 농활을 진행했다.

Q2 “농사일을 하면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농업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한국 사회의 변혁과 관련이 있다. 농업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동안 농업 분야는 미 제국주의의 침탈을 가장 적나라하게 받아왔고, 그로 인해 농가 부채, 쌀 문제, 식량 자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 침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다.

A2

Q3 “농산물은 비싸지는 반면 농촌은 어렵다는 소식이 많다.
농산물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이 궁금하다.”

농민들에게는 가격 결정권이 없으며, 농산물의 가격은 경매사에 의해 결정된다. 그마저도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가격은 누구도 예측을 못 하고 폭락과 폭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통 구조의 문제, 중간 유통업자들의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이익 보는 것이 없고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부담을 다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는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그래서 ‘농민에게 가격 결정권을 보장하라’,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중단하라’, ‘유통 구조 개선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A3

Q4 “양곡관리법 개정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생산량이 초과가 되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폭락하면 정부에서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준 자체를 완화해버

A4

렸다. 국제기구에서는 기후 문제, 재난, 전쟁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량의 비축미를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소 170만 톤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축미 제도가 무의미해져 버렸다. 청산돼야 할 농림부 장관과 그 관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지금 농업정책은 윤석열 정부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A4

Q5 “한미 FTA로 한국 농산물 시장이 엄청나게 개방이 됐다. FTA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다.”

곡물자급률 20% 선이 무너졌다. 하루에 다섯 끼를 먹으면 한 끼만 국내산을 먹는 거고 네 끼는 수입농산물을 먹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추세라면 곡물자급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는 만큼 수입농산물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

A5



Q6

“정부가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다고 들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지원금을 주며 가루쌀, 논콩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나 최근 들어서 가루쌀과 논콩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A6

직접 겪은 건 없지만 가루쌀, 논콩은 남도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콩은 논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처럼 예측할 수 없는 폭우로 밭이 잠겨버리면 전부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에서는 재배를 권유하고 있지만 강요에 가깝다. 쌀 재배 면적을 계속 줄이겠다는 의도다. 가루쌀도 마찬가지다. 밀가루를 대체하는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겠으나 이 지원사업은 전 농림부 장관의 역점 사업이었다. 임기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맞지 않는 지원사업을 진행했고 농림부 장관이 바뀌면서 가루쌀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다.



Q7 “매년 이상기후로 겪는 피해가 크다고 알고 있다. 올해도 비가 한 번에 몰아서 오는 경우가 잦았는데 농업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듣고 싶다.”

A7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 작물 자체가 바뀌었다.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재배되던 사과가 이제는 강원도까지 올라왔다. 앞으로 30년 뒤에는 국내에선 사과 생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관령 고랭지 지역은 여름 배추 재배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었는데 요즘 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름 배추는 심을 데가 없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폭우와 폭염이 잦아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잘하라’는 식의 말만 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Q8 “전국적으로 윤석열 탄핵 집회가 가열차게 진행됐을 당시 많은 2030세대의 집회 참여가 이슈가 됐다. 남태령에서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젊은 층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A8 남태령 투쟁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을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늘 국민과 함께 농업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가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앞으로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대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남태령 투쟁은 이름도 성씨도 모르는 다양한 젊은 층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냈고, 마지막에 차 벽도 열어냈다. 농민들만의 승리가 아닌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분,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했던 모든 분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
2가-2
2가-1
쎄빠지게 농사지어 남는게 없다
11월 20일 전국농민대회 가자 서울로!
농민회



조선대학교 구성원

조선대학교 학우들

익명 학생 A

Q1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1

전공이다. 실습을 시작하면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실 전공에 대한 관심이 나에겐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는 중이다. 평생 환자 입장으로 살다가 의학도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죽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게 됐기 때문이다. 2주 정도 응급실 당직을 섰다. 실습이라는 건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일이다. 그런데 나는 사람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배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할 줄 아는 게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웃대고 있는 스스로가 힘들었다.

또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편이다. 얼굴, 이름 알고 팀플도 같이 해봤는데 안 친하다는 이유로 인사를 안 하는 건 내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도 저기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울할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 질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던진다. 하지만 아직 그 질문에 답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A1

Q2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환경이다. 오늘도 테이크아웃을 했다. 병원에서는 일회용품을 엄청 사용한다. 주사 하나도 다 새로 뜯어야 하고 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건네줄 때 끼고 있던 장갑을 버리고 새로운 장갑을 껴야 한다. 그걸 보면서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온단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약간에 회의감도 든다.

A2

Q3 “최근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

얼마 전 법대를 갔는데 법대 화장실 안에 노란봉투법 기사가 붙어있었다. 나 역시 노동자고 다들 노동자의 아들딸이다. 그런데 내가 속해있는 사회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내가 지방 출신이라서 그런지 지방 의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전남권의 경우 환자는 영암, 나주, 진도 등 각지에서 올라오는데 화순 전남대 병원을 포함하면 광주 전남

A3

권역 대학병원은 세 개밖에 없다. 지금 내시경 환자가 3개월이 밀려있다. 물론 효용만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 정부는 전남권 의대 설립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항상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피해 가고 있는 듯하다. 더 나은 의견들이 모이길 바란다.

A3



Q4 관심이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나?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향했던 관심을 통해 스스로가 변화한 경험이 있다. 흔히 '도파민'이라고 하는 순간적인 자극을 쫓던 나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주던 상대방이 있어서 나 스스로를 더 알아가게 된 것 같다.

카페에서 1년 동안 알바를 했다. 나는 뭐든 빠르게 질리는 사람인데 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커피에 취향이 생겼고, 사람을 대하는 관점에도 변화가 생겼다. 예를 들어 이른바 진상손님을 만났을 때 옛날이었다면 내 마음에만 두고 힘들어했을 텐데 지금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돈 버는 게 뭔지도 알게 됐고, 경제관념도 조금씩 바뀌었다.

그리고 때로는 관심이 좋은 쪽으로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험도 있었다. 좋아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를 말린 적이 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A4

Q5 민주조선은 조선대학교 학우들의 시사 교양지로서 1988년 창간호부터 교지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민주조선 교지에 담겼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학교를 굴러가게 하는 분들이 계신다. 예를 들어 이곳 도서관이 열두 시에 문을 닫는다면 그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는 경비원분들이 계시고 병원도 청소해 주는 분들이 있기에 의료폐기물이 감당되는 것이다.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인사를 하려고 하는 편이다. 그런데 되려 그분들이 어색해하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다른 학생들도 인사라도 하면 좋겠단 생각을 하게 된다.

A5



익명 학생 B

Q1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전공 공부이다. 물론 공부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못 따라가면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싫어진단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2학기 되니 전공 공부가 심화되어 어려워졌다. 부담은 생기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대학생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성적을 생각하기보단 전공과 학생 생활을 성실히 채워나가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A1

Q2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요즘은 성과 위주로 관심과 집중이 되는 것 같다. 그 속에 담긴 학생 개개인의 성찰과 내면적인 고민은 조명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성과보다도 뒤에 숨겨진 크고 작은 고민들, 숨은 이야기들에 더 관심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전공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인간관계와 이해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나 혼자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같은 고민들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품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A2

Q3 “최근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

요즘 사회에는 이슈가 참 많다. 사회는 늘 빠르게 돌아가지만 나는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삶이 어떤 가치와 균형을 지향해야 하는지,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 사회에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얼마나 ‘빨리’, ‘많이’ 보단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3

Q4 “관심이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나?”

생활적인 측면에서 내면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게 됐다.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콘텐츠들도 많아지면서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둘지, 무엇을 놓아줄지를 생각하게 됐다. 예전엔 마음속에 간직하는 타입이라 털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어느 순간 사사로운 것들이 내 생활에까지 침투하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사사건건 관심을 두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내 공부든 스스로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느낀다.

A4

Q5 “민주조선은 조선대학교 학우들의 시사 교양지로서 1988년 창간호부터 교지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민주조선 교지에 담겼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단순히 교지가 어떤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들의 불안함과 희망, 이런 주제가 담겼으면 한다.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을 정직하게 담아내면 좋겠다.

A5

Q6 “최근 관심 있게 읽은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러시아와 미국과의 외교와 관련된 기사를 봤다. 트럼프가 러시아에 2차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에 기사였는데 과연 2차 제재를 할 것이 남아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A6

Q7 “학교생활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사람들과 같이했던 순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한 친구가 잘 못 가고 있는 저를 잡아준 적이 있다. 제가 예전부터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줬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관심이 있으니 말해 준 거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스스로 성찰을 하게 됐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A7

Q8 “앞으로 해보고 싶은 학교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동아리, 과대, 스터디, 공부 등 다 해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엔 교환학생을 가고 싶단 생각이 든다.

A8



익명 학생 C

Q1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1

최근 새로운 취미로 러닝을 저녁마다 하고 있다. 건강도 챙기고, 목표를 정하고 뛰면 성취감도 있고 좋은 취미인 것 같다. 그 외엔 학교 수업이 많아서 가끔 휴식 시간이 생길 때면 영화, 드라마 리뷰영상을 많이 본다. 보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기도 하고 평소 보고 싶었던 걸 요약해 줘서 쉴 때마다 찾게 되는 것 같다.

Q2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요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학교 성적이나 취업 등 경쟁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함께 보내는 소소한 일상들, 예를 들어 예쁜 캠퍼스의 풍경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우리가 살면서 흔하지만 귀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A2

Q3 최근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

요즘은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상대방이 조금만 실수해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인터넷상에서는 악플을 다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면교사 삼아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A3

Q4 “관심이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나?”

음악이다. 원래 음악을 자주 듣지 않았고, 큰 관심도 없어서 이어폰을 사용할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로부터 밴드음악을 추천받고, 밴드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밴드음악을 비롯해 여러 음악 장르에 흥미가 생겼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러 가거나 버스를 탈 때, 운동할 때 등 언제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됐다.

A4

Q5 “민주조선은 조선대학교 학우들의 시사 교양지로서 1988년 창간호부터 교지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민주조선 교지에 담겼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민주조선의 정체성을 녹여낸 주제나, 조선대의 숨겨진 역사적인 것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또 최근 큰 이슈였던 조지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비판하는 글이나, 우리 학교 노동자의 이야기들이 민주조선의 정체성과 맞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조선대 학생의 일상을 공유하는 일기 형태의 에세이 같은 것도 있다면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기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다.

A5



38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고인욱

Q1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이다. 광주 지역에서 취업이 쉽지 않은데 출판업계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A1

Q2 “학생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꼰대 같은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18학번이다. 입학 당시만 해도 선후배 관계가 매우 끈끈했다. 매일 만나고 고민이 있으면 선배들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시곤 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서 학교에 돌아와 보니

A2

선후배 관계가 엄청 느슨해진 것을 느꼈다. 에브리타임 같은 익명 커뮤니티를 봐도 서로 다투는 글이 대부분이다.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A2

Q3 “최근 관심 있게 읽은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AI로 사라질 직업을 찾아본 적이 있다. 문득 내가 취업하고 사회에 자리 잡았을 때 내가 선택한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며 읽었던 기억이 있다.

A3

Q4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학회 활동으로 빠지고 재작년부터 동아리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다른 동아리부원들에 비해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편은 아니었다. 작년 총동아리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우들을 가까이서 보게 됐는데 ‘나도 저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학교생활이 더 재밌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회관 동아리실에서 저녁까지 연습하는 모습, 점심에는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모습이 부러웠다. 그리고 내가 못 했던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도 가지게 됐다. 동아리 활동을 다른 부원들에 비해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기에 조선대학교 동아리 부원들의 동아리 활동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A4

Q5 “한 해에 절반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과 어려웠던 순간은 무엇이었나?”

뿌듯했던 순간과 어려웠던 순간이 같은데 총동아리연합회 활동을 하며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동아리 알림 아리’를 준비했을 때의 일이다. 매년 3월 개강 시즌에 열리는 이 행사는 조선대학교의 다양한 동아리를 신입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행사이다. 그런데 워낙 동아리마다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보니 64개의 동아리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틀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물론 어려웠던 만큼 보람도 컸다. 행사 기간 많은 학우들이 와줬고, 언론보도와 기자들의 취재도 있었다.

A5

Q6 “만들어보고 싶은 동아리 혹은 활동해 보고 싶은 동아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조선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는 광주·전남권에 있는 다른 총동아리연합회에 비해 동아리 개수가 월등히 많다. 타 대학 동아리가 20~30개 정도 된다면 조선대는 약 두 배가량 되는 64개의 동아리가 있다. 특색 있는 동아리도 많지만 조금 더 특별한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다. 동아리는 순수하게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공간이다. 서로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덜 교육적이어도 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산악 동아리, 보드게임 동아리 이런 동아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A6

Q7 “38대 총동아리연합회 학생회가 조선대 학우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

총동아리연합회는 각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히 운영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학우들이 각 동아리 행사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총동아리연합회 행사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총동아리연합회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38대 총동아리연합회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대답은 그저 ‘38대 총동아리연합회가 이런 활동, 행사도 했었다.’ 정도만 기억돼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했던 활동의 흔적만이라도 학우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기를 바란다.

A7





조선대학교 봉사분과 애니멀애니몰 동아리회장 조성은

Q1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1

요즘은 제로 안락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공부 중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제로 안락사란 건강하거나 치료, 재활할 수 있는 동물을 안락사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자 운동을 말한다.

Q2 학생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정 소수의 학생만 활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학과, 학년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거나 프로젝트형 활동 기회를 많이 제공하길 바란다.

A2

Q3 최근에 관심 있게 읽은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요즘 스포츠 기사를 읽는 것에 취미가 생겼다. 옌스 카스트로프가 한국 국적을 택하면서 이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됐고 동시에 병역의 의무가 생겼다는 기사가 많이 올라왔다. 기사를 보며 병역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했다.

A3

Q4 현재 동아리를 가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어렸을 적부터 동물을 좋아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보호소 봉사 활동이나 임시 보호와 같은 동물 봉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게 대학교에 진학한 뒤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동물 봉사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입학하자마자 바로 가입을 결심했다.

A4

Q5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힘들었던 순간은 올해 여름, 고양이를 3일 동안 임시 보호한 적이 있었다. 그때 고양이와 처음으로 오랫동안 지내며,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됐다. 밥 챙겨주기, 놀아주기, 화장실 청소와 같은 기본적인 것만 했을 뿐인데도 쉽지 않았다.

제일 뿌듯했던 순간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 고양이를 임시 보호하다가 입양 보냈을 때였다. 세 마리 모두 같은 어미 고양이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같이 입양되길 바랐는데, 다행히 마당 있는 집을 가진 좋은 분께 세 마리 모두 함께 입양을 보낼 수 있었다.

A5

Q6 “동아리 회장으로서 학생회 혹은 학교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학생회관이 오래된 만큼 동아리 방에도 하나둘씩 고장 나는 것들이 생기곤 한다. 이러한 시설들의 수리비를 모두 동아리 회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힘든 부분이다. 이런 경우 일부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A6

Q7 애니멀 애니몰 동아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

A7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는 동아리로 기억됐으면 한다.

Q8 앞으로 해보고 싶은 동아리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A8 1박 2일 일정으로 봉사 MT를 가보고 싶어서 이번 동계에 봉사 MT를 계획하고 있다.

익명 학생 D

Q1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1 파이썬. 수업에서 배우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Q2 학교에 개선되어야 할 점 혹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2 없다.

Q3 최근 관심 있게 읽은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A3 기사는 아니고 영화 칼럼을 읽었다.

Q4 학교생활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

A4 학교 운동장에서 배달시켜 먹은 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익명 학생 E

Q1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1 요즘은 주식에 관심이 있다.

Q2 학교에 개선되어야 할 점 혹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2 단절된 교우관계다. 학과 사람들이랑 교류할 일도 많지 않고 서로 잘 모르는 게 문제 같다.

Q3 최근 관심 있게 읽은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A3 바이오 관련 기사를 봤다.

Q4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

A4 딱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

Q5 앞으로 학교생활 중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A5 최근에 동아리에 가입해서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익명 학생 F

Q1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1 영화 보기에 관심이 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많아 교양을 쌓는 동시에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자연스레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다.

Q2 학교에 개선되어야 할 점 혹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2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활발히 반영되면 좋겠다.

Q3 최근 관심 있게 읽은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A3 야구에 관심이 많아 최근 기아 타이거즈 관련 기사를 읽었다.

Q4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

A4 학교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Q5 앞으로 학교생활 중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A5 최근에 동아리를 가입해서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익명 학생 G

Q1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1 최근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

Q2 학교에 개선되어야 할 점 혹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2 미대 앞 스쿨버스 정류장에 줄을 서도록 하면 좋겠다.

Q3 최근 관심 있게 읽은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A3 조지아주 현대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체포·구금한 기사를 읽었다.

Q4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

A4 작년 학교 축제에 뉴진스가 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Q5 앞으로 학교생활 중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A5 동아리 활동이다.



조선대학교 구성원

조선대학교 백학여학사 경비원

Q1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1

나이가 예순을 넘어가면서 노후생활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커진 것 같다. 그리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주변을 보면 결혼을 안 하거나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느낀다. 열심히 저축하고 살아도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기가 참 어려운 사회가 되어 버린 것 같다.

Q2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가끔 학생들에게서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학생들이 있기에 나 또한 이곳에 출근할 수 있다는 걸 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은 없지만 학교를 자신의 공간이라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A2

Q3 “최근 관심 있게 읽은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문제는 많다.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레 나라 한탄으로 흘러간다.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30~40%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걸까. 잘하면 박수 쳐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지지율이 60%가 넘는 일이 거의 없다. 결국 자식들 걱정으로 이어진다. 지금 사회는 너무 착해서는 못 산다는 생각이 든다. 정직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

A3

Q4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경비실 주된 임무는 외부인, 물건 등을 살피는 감시 업무이다. 그렇지만 학생이 다쳐서 온다거나 문이 잠겼다거나 시설물이 고장 났다거나, 심지어 벌레가 나타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근로학생 동행하에 돕고자 한다. 비록 내 일은 아니지만 도우려고 한다. 다만 아무래도 여학사의 기준이 있다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

A4

Q5 “학생들을 자주 만날 것 같은데 어떤가?”

학생들과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생들 민원을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그것도 비상시 조치 정도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다만 나는 학생들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 하나라도 외우려고 한다.

A5



조선대학교 구성원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비원

Q1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1

세대 차이는 있겠지만 5.18 당시 학생들은 국가관이나 사회정의에 투철했다. 젊은 학생들을 접해보니 국가관도 희미해졌고 사회적 책임 의식도 예전보다 약해진 듯하다. 기성세대 입장에선 걱정이 많이 된다. 옛날엔 교수들도 인격을 갖추고, 주입식보단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며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해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든다. 교우관계도 안 좋고 학교폭력 사례도 늘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학생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바라고 교육 이념부터 바뀌면 좋겠다.

Q2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난이 발생했을 때 친구들과 공유하고 그러면서 집단이 만들어진다. 그 집단이 항의를 하기도 하고 비뚤어진 것을 제대로 서게 만든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정신 같은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 실망을 느끼게 된다.

A2

Q3 “최근 관심 있게 읽은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교육의 방향을 조금 틀어보면 좋겠다. 영어, 수학 중심의 입시 교육보다 윤리, 역사 과목에 비중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A3



조선대학교 구성원

조선대학교 셔틀버스 기사

Q1 “이 일을 한 지 얼마나 됐나?”

근무 2년 차로 이전에는 고속버스 기사로 일하다 정년퇴직 후 현재 조선대학교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맡고 있다.

A1

Q2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60대이다 보니 건강이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하고 있다.

A2



Q3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학생들에 대한 바람이라기보다는 학교 측에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가 증설되면 좋겠다. 현재 입석으로 탑승하는 학생들이 많다. 차량도 노후화되어 새 차량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후화된 차량이다 보니 에어컨, 히터 등 작동상태가 새 차량에 비해 낮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보인다.

A3

Q4 “최근 관심 있게 읽은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은 20~30대 생각이 더 옳다고 본다. 기성세대 의견은 고집도 있고 보수적인 면이 있지만, 2030세대는 보다 진취적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A4



조선대학교 구성원

조선대학교 백학학사 학생식당 조리사

Q1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리사1: 요즘은 가족들보다 내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가족만 바라보며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나를 위한 생활을 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사회생활은 어떤 일을 하든 스스로 발전이 된다. 그래서 지금이 무척 즐겁다.

조리사2: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곳의 큰 매력은 분명한 결과물이 있다는 것이다. 음식이라는 결과물을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뿌듯해진다. 조리하면서 바쁘고 복잡하다가도 식사 시간이 끝나고 설거지와 식당이 정리된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조리사1: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와 어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 생각의 차이가 있다. 사실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 때는 더 즐겁다.

조리사2: 맞다. 아이들은 아이들 자체만으로도 빛나고 예쁘니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A1

Q2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

조리사1: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했다. 그리고 다시 사회에 나오니 1년 계약직으로만 근무하게 됐다. 나는 직장 옮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더욱 지쳤던 것 같다. 이곳 학생 식당에서 근무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잘 맞는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조리사2: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다 내 가게를 차렸다. 오래 가게 일을 하다 정리를 하고 집에 있는데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고 무료했다. 그러다 이곳 학생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 너무 재밌고 좋다. 이곳에서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부딪치는 것들이라 감정이 남지도 않는다. 스트레스 없이 내 업무만 명확히 하면 된다는 점이 편하고 부담감이 없다. 고등학교 급식실은 1시간 조리하면 3시간 청소한다고 들었다. 업무강도가 너무 높아 직원들을 못 구한다고 들었다. 여기도 힘들지만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는 다르다는 걸 느낀다.

A2

Q3 “요리할 때 제일 까다로운 음식은 무엇인가?”

조리사1: 아무래도 뼈 찜을 만드는 조리 과정이 오래 걸려서 까다로운 음식인 것 같다. 전날부터 물에 담가 핏물을 빼야 한다. 그런 다음 초벌로 삶아서 양념 넣고 조리해야 하는데 고기 무게가 무거워 조리하는 데 힘이 든다. 이렇다고 해서 짜증나진 않는다. ‘즐겁다고 생각하면 뭔들 안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리사2: 메뉴에 따라 달라지지만, 나는 볶음밥이 힘든 편이다. 조리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큰 솥단지를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다 보면 다음 날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 볶음밥이나 특별식이 나오는 날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양도 더 많이 준비한다. 조리할 땐 정신이 없어서 아픈 줄도 모르고 일하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야 몸이 아픈 걸 느낀다.

A3

Q4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조리사2: 석식 시간이 5시 30분부터 7시까지인데 학생들이 마감 시간인 7시에 딱 맞춰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능하다면 5분, 10분 정도만 일찍 와주면 좋겠다. 밥이나 반찬이 부족할 때 그 정도 여유만 있어도 빠르게 음식 조리가 가능한데 마감 시간 이후에 오면 음식을 만들어주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늦게 왔다고 해서 학생들을 굶겨 보낼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일찍 와주면 좋겠다. 최근 학생들이 마감 시간 지나서 온 경우가 있었다. 밥이 떨어진 상태라 라면이라도 끓여서 보낸 적이 있었다.

조리사1: 맞다. 배고픈 학생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끓여줬다.

A4

Q5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조리사1: 이 식당은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 바뀌면 좋겠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이곳은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이 찾아올 공간이다. 그런 만큼 노후화된 시설을 수리, 보수 해주면 좋겠다.

조리사2: 시설보수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후화된 것들이 있다. 우리 나름대로 청소하지만 이미 노후화돼서 청소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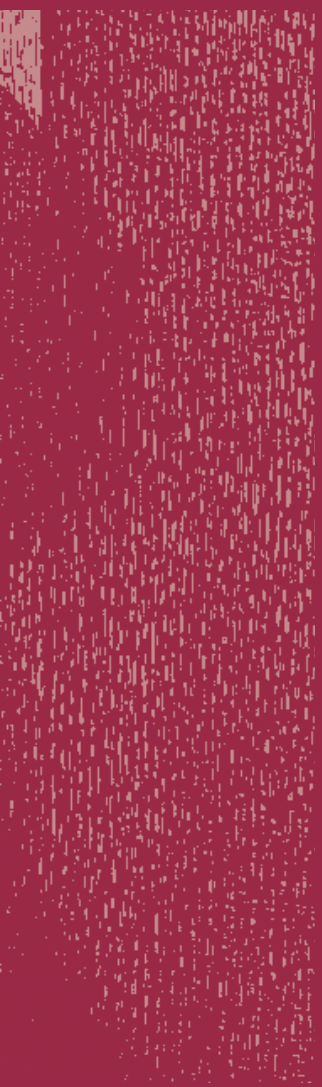
A5



조선대학교 민주조선 교지편집위원회

신입 수습위원 모집





민주조선 교지편집위원회에서 신입 수습위원을 모집합니다.

'민주조선'이란 1988년 1.8항쟁을 계승하여 초대 편집장 이철규 열사가 1989년 3월 창간한 조선대학교 교양 소식지입니다. 민주조선 교지편집위원회는 '민주조선'을 발간하는 학생자치 언론기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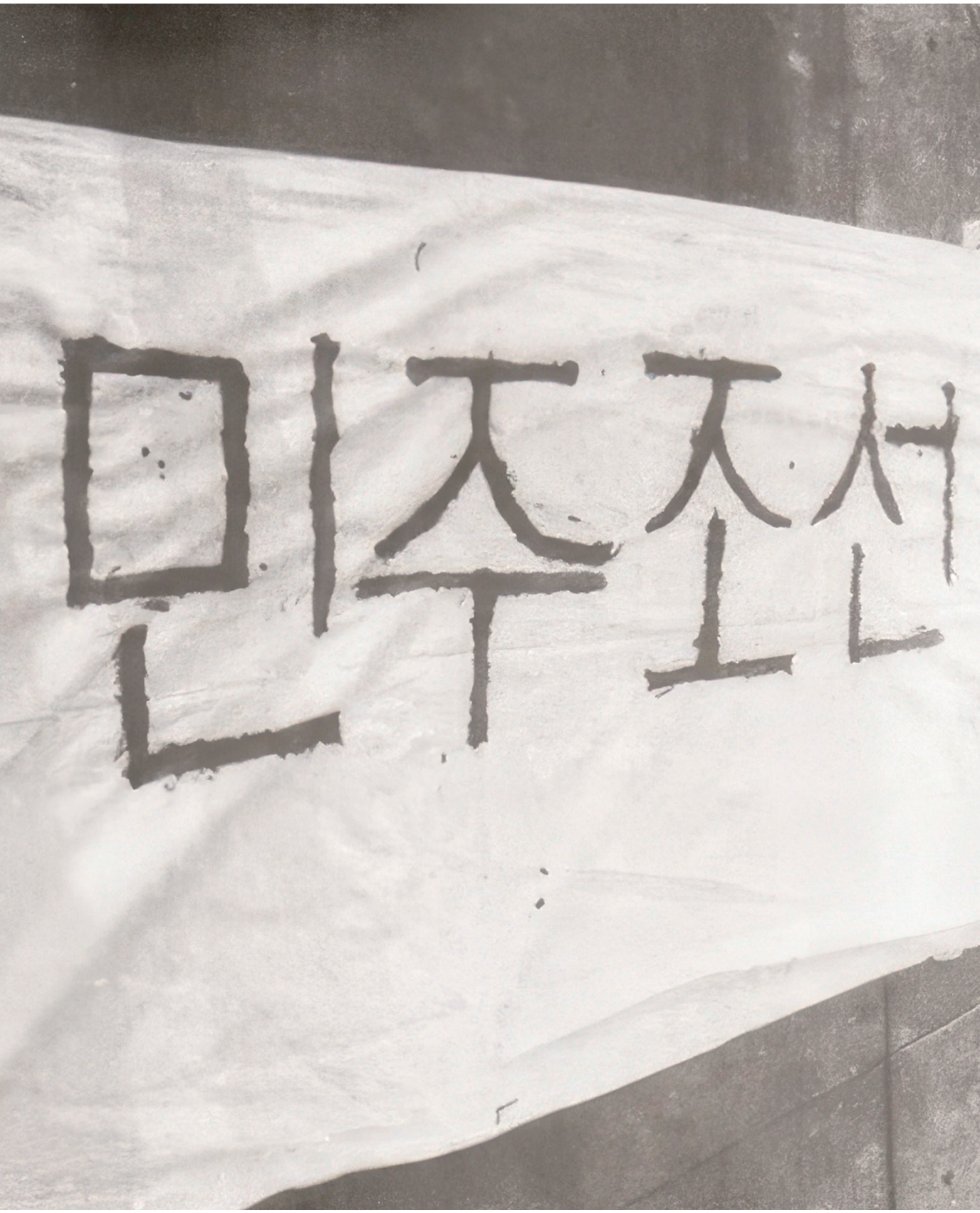
정기회의 및 스터디를 통해 교내외 인사들을 취재하고, 타 대학 교지 편집부와 교류하여 연계를 쌓고, 대학과 지역이 하나 되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합니다.

지원자격 조선대학교 학우 (휴학생 가능)

면접방식 개별 대면 면접 (스케줄 협의 후 결정)

면접장소 학생회관 3층 3218호

문의 010-3221-2049


민주조선


조선대학교

편집후기

양재경 편집위원장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 함께라서 가능했다. 어떤 글을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 누구를 위한 글을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아쉬움은 다음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곽주은 편집위원

언제나 글을 쓸 때면 신중해진다. 내가 적는 언어가 올바르게 읽힐 수 있을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심상이 온전히 가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탓이다. 특히 나 이번에는 글이 잘 써지지 않아 고생했는데, 언어를 가다듬어 내보이는 데에도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걸 절감했다. 알아야만 하는 것들, 남들이 듣게 만들고 싶은 것들에 대해 적으면서 나 자신에게도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앎이 삶을 바꾸게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시간들이었다. 이 교지를 읽는 이들에게도 이 모든 글들이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한다.

예결산내역

2024년도 전체 수입

교지발간비	
2023년 이월금	9,127,200
2024년 교지발간비	0
합계(원)	9,127,200

2025년 전체 수입

교지발간비	
2024년 이월금	4,200,200
2025년 교지발간비	0
합계(원)	4,200,200

2024년 전체 지출

농민학생연대활동 버스대절비	400,000
광주기행포스터	284,400
광주기행숙소비	616,600
교지인쇄비	1,373,000
교지디자인비	2,003,000
간담회포스터	250,000
합계(원)	4,927,000

2024년 민주조선 교지편집위원회 예산안

교지제작비	편집디자인비, 인쇄비 등	5,000,000
5.18민중항쟁 역사탐방 기행	버스대절, 식비, 각종 행사 제반비용	1,000,000
농민학생연대활동	버스대절	500,000
학내 자치 문화 활성화 사업	대관비, 물품대여비, 다과비	2,000,000
지역인사 인터뷰 및 간담회	인터뷰 간담회 다과 준비 등	600,000
합계(원)		9,100,000

2025년 민주조선 교지편집위원회 예산안

5.18민중항쟁 역사탐방기행	식대, 교통비 등	300,000
하계 문화 탐방	교통비, 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	300,000
학내 문화 활성화 사업	행사 물품 제반 준비 비용	100,000
취재 및 인터뷰 비용	인터뷰 간담회 다과 준비	100,000
편집실 보수, 소모품 구매	도어록 설치, 프린터 수리 및 잉크, A4 용지, 보드마커, 멀티탭 등	200,000
교지제작비	교지인쇄비	3,000,000
합계(원)		4,000,000


故
이
철
규
의
사